

離農家口의 都市에서의 適應 行態*

李 殷 雨**

〈目 次〉

- I. 서 론
- II. 이주이유
- III. 도시에서의 직업선택
- IV. 주거형태
- V. 이주후 생활상태비교
- VI. 결 론

I. 서 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대부분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한국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외향적 공업화 정책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이 아주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농촌과 도시 양쪽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쳤다(B.S. Lee, 1991). 개별 경제주체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일부는 도시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는 등 생활수준이 농촌에서보다 낮으나, 평균적으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S. Lee, 1991). 이런 소득격차와 생활환경격차가 농촌의 인구가 과소한데도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이동이 꾸준히 일어나는 근본이유일 것이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 이 논문은 94년 2월 韓國經濟學會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학회에서 좋은 논평을 해 주신 안동대학교의 김옥암 교수와 심사과정에서 좋은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린다.

** 蔚山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분석뿐만 아니라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개별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 행태를 고찰함으로써 인구이동 현상의 일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개인의 이주행태에 대해 다수의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윤근섭(1987), 姜信寓(1985), 尹汝德 外(1983), 李宗勳(1985), 尹辰浩(1986), 尹汝德·金鍾採(1984), 그리고 尹鍾周(198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여기서 尹辰浩와 尹鍾周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특정지역에서 추출된 소규모의 표본자료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결과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尹辰浩(1986)는 ‘고용구조 특별조사’의 원자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구이동보다 노동력 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노동력 이동에 대해서 1년전의 직업과 현재의 직업만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추세를 관찰하기에는 미흡하다. 尹鍾周의 연구는 전반적인 개인의 이주에 대해 개괄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요 관심분야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는 그 초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된 표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개별가구의 제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분석을 위해 이용한 자료는 ‘인구이동특별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이 조사는 1983년에 경제기획원과 한국인구보건연구원(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것인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추출법에 의하여 선정된 조사대상가구를 조사한 것이다. 이 조사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가구수는 8,897호이나 실제로 이용가능한 자료는 8,831호이다. 이 중 서울 거주 가구가 3,248호, 직할시(부산,대구,인천) 거주 가구가 1,166호, 기타도시 거주 가구가 2,532호로 도시거주가구가 6,946호이고, 농촌 거주 가구는 1,885호이다. 여기서 농촌은 행정구역이 郡인 지역을 나타내고, 도시는 행정구역이 市인 지역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가구의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행태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제 II장에서는 이주자의 특성과 이주이유를 고찰한다. 제 III장에서는 이주자의 특성과 도시에서의 직

업선택, 제 IV장에서는 이주자의 특성과 주거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이를 위해서 다항 로지트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한다. 제 5장에서는 이주후 생활상태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II. 이주이유

‘인구이동특별조사’의 ‘가구’조사에는 가구원들의 인적사항 이외에, 5년 이내의 이주여부가 조사되어 있다. 5년 이내의 전입자의 경우 직전거주지, 전입이유, 전입당시 교육정도, 전입당시 활동상태, 그리고 전입당시 혼인상태 등이 조사되어 있다. 제 II장, 제 III장, 그리고 제 IV장에서는 ‘가구’조사 자료 중 5년 이내 농촌에서 도시로 전입한 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제반사항을 분석하기로 한다.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주 등 한 가구의 여러 의사결정과정에서 가구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는 표본가구 6,949호 중 5년 이내 농촌에서 이주한 가구는 모두 726호이다.

이 장에서는 이들 726명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이주이유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들 가구주가 응답한 전거주지(농촌)에서 현거주지(도시)로의 이주원인은 <표 1>과 같다. 전체 726명 중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한 사람은 481명으로 66.3%, 교육적 요인으로 이주한 사람은 158명으로 21.8%, 그리고 가족적 요인으로 이주한 사람은 63명으로 8.7%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의 주요원인은 경제적 요인과 교육적 요인이다. 윤근섭(1987: 45-47)이 1986년에 전북농촌지방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촌으로부터의 이주원인은 경제적 요인이 52.4%, 가족적 요인이 14.3%, 교육적 원인이 23.5%, 그리고 직업적 요인이 14.2%로 나타나 있는데, 직업적 요인을 경제적 요인에 포함시키면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본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姜信寓(1985: 144)가 충북지방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離村理由가 취업 52.7%, 轉業 10.0% 등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하는 비율은 비슷하나, 가족과의 동반이 20.4%, 혼인이 10.8%로 가족적 요인의 비율이 높은 반면, 학업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는 3.7%로 교육적 요인은 보다 낮게 나타나 있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조사대상의 차이에 있다. 윤근섭과 姜信寓의 연구는 농촌부락에서 부락을 떠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조사한 것이고, 본 연구는 현재 도시에 거주하지만 5년 이내 농촌으로부터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표 2〉는 성별 이주이유를 나타낸다. 남자 여자 모두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교육적 요인, 그리고 가족적 요인이 많다. 그러나 남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여자는 가족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여자의 경우 가족적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이미 도시로 이주해 있는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윤근섭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은 결혼상태별 이주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자, 기혼자 모두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70.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인데 반해, 미혼자는 경제적 요인이 57.2%, 그리고 교육적 요인이 35.8%로 나타나 기혼자에 비해 교육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표 4〉는 연령별 이주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은 교육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0세 이상의 경우는 가족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 이 이유는 19세 이하의 미혼계층은 자신의 진학이나 학업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50세 이상의 경우 이 연령계층에 속하는 여자들이 이미 도시로 이주해 있는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대, 30대 그리고 40대의 경우는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다시 재분류해 보면 20대의 경우 구직이나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30대, 40대의 경우 전근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40대의 경우 교육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이 연령계층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5〉은 교육정도별 이주이유를 나타낸다. 여기서 각 학력계층은 재학생을 포함한 것이다. 무학 계층은 타계층에 비해서 가족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이 계층에 속하는 50대의 여자들이 가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졸 및 고퇴 계층은 교육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 이

상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데 연유한다. 모든 교육계층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것을 다시 분류해 보면 무학, 국졸 및 국퇴, 중졸 및 중퇴, 그리고 고졸 및 고퇴 계층은 구직이나 직업전환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대 이상 계층은 전근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6〉은 농촌에서의 직업과 이주이유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5년 이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726명 중, 비경제활동 및 기타 294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농촌에서의 직업을 보면, 농림수산업이 194명,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97명, 생산·운전·단순노무직이 81명, 그리고 판매업·서비스직이 56명이다. 모든 직업계층에서 경제적 요인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데, 이중에서도 전문·기술·행정·사무직은 전근때문에 이주한 경우가 많고,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구직이나 직업전환을 위해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화이트 칼라(white-collar)층에 속하던 사람들은 전근 등의 이유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고, 블루 칼라(blue-collar)층에 속하던 사람들은 구직이나 직업전환 등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비경제활동 및 기타 계층은 다른 직업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요인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부분은 학생들로 자신의 학업을 위해서 이주한 경우이다.

〈표 1〉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이주이유

단위 : 명, %

이주이유	가구주수(비율)
경제적 요인	481 (66.3)
구직/일거리를 찾아서	198 (27.3)
직업전환/발전/증진 위해서	100 (13.8)
전근으로	77 (10.6)
돈벌기 위해/더 많은 수입을 위해서	37 (5.1)
본인과 가족의 근무인접지로 오기 위해	47 (6.5)
기타 경제적 사항	22 (3.0)
교육적 요인	158 (21.8)
진학, 학업때문	93 (12.8)
자녀교육 위해	63 (8.7)
기타 교육적 사항	2 (0.3)
가족적 요인(연고지요인)	63 (8.7)
도와주려고	20 (2.8)
기타 가족적 요인	43 (5.9)
기타요인	24 (3.3)
계	726 (100.0)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이동특별조사(가구)”의 원자료.

〈표 2〉 성별 이주이유

단위:명,%

이주이유	남자	여자	계
경제적요인	377 (71.0)	104 (53.3)	481 (66.3)
교육적요인	107 (20.2)	51 (26.2)	158 (21.8)
가족적요인	26 (4.9)	37 (19.0)	63 (8.7)
기타요인	21 (3.9)	3 (1.5)	24 (3.3)
계	531 (100.0)	195 (100.0)	726 (100.0)

$$\chi^2=44.17 \quad d.f.=3 \quad p<0.001$$

자료:〈표 1〉과 동일

〈표 3〉 결혼상태별 이주이유

단위:명,%

이주이유	미혼	기혼 및 기타	계
경제적요인	139 (57.2)	342 (70.8)	481 (66.3)
교육적요인	87 (35.8)	71 (14.7)	158 (21.8)
가족적요인	12 (4.9)	51 (10.6)	63 (8.7)
기타요인	5 (2.1)	19 (3.9)	24 (3.3)
계	243 (100.0)	483 (100.0)	726 (100.0)

$$\chi^2=45.20 \quad d.f.=3 \quad p<0.001$$

자료:〈표 1〉과 동일

〈표 4〉 연령별 이주이유

단위:명,%

이주이유	19세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계
경제적요인	27(31.0)	233(78.5)	129(75.9)	70(63.1)	22(36.1)	481(66.3)
교육적요인	58(66.7)	36(12.1)	19(11.2)	33(29.7)	12(19.7)	158(21.8)
가족적요인	2(2.3)	20(6.7)	15 (8.8)	2(1.8)	24(39.3)	63(8.7)
기타요인	0(0.0)	8(2.7)	7(4.1)	6(5.4)	3(4.9)	24(3.3)
계	87(100.0)	297(100.0)	170(100.0)	111(100.0)	61(100.0)	726(100.0)

$$\chi^2=222.35 \quad d.f.=12 \quad p<0.001$$

자료:〈표 1〉과 동일

〈표 5〉 교육정도별 이주이유

단위:명,%

이주이유	무학	국졸및국퇴	중졸및중퇴	고졸및고퇴	전문대이상	계
경제적요인	17(44.7)	86(68.3)	109(69.4)	206(66.0)	63(67.7)	481(66.3)
교육적요인	6(15.8)	20(15.9)	30(19.1)	77(24.7)	25(26.9)	158(21.8)
가족적요인	14(36.9)	15(11.9)	10 (6.4)	20 (6.4)	4 (4.3)	63 (8.7)
기타요인	1 (2.6)	5 (3.9)	8 (5.1)	9 (2.9)	1 (1.1)	24 (3.3)
계	38(100.0)	126(100.0)	157(100.0)	312(100.0)	93(100.0)	726(100.0)

$$\chi^2=52.90 \quad d.f.=12 \quad p<0.001$$

자료:〈표 1〉과 동일

〈표 6〉 직업별 이주이유

단위:명,%

이주이유	전문·기술· 행정·관리	판매업 서어비스	농·림· 수산	생산·운전 단순노무	비경제활동 및 기타	계
경제적요인	80(82.5)	45(80.4)	137(70.6)	70(82.3)	149(50.7)	481(66.3)
교육적요인	12(12.4)	4(7.1)	30(15.5)	11(12.9)	101(34.4)	158(21.8)
가족적요인	5(5.1)	3(5.4)	16(8.2)	2(2.4)	37(12.6)	63(8.7)
기타요인	0(0.0)	4(7.1)	11(5.7)	2(2.4)	7(2.3)	24(3.3)
계	97(100.0)	56(100.0)	194(100.0)	85(100.0)	294(100.0)	726(100.0)

$$\chi^2=78.81 \text{ d.f.}=12 \text{ p}<0.001$$

자료:〈표 1〉과 동일

III. 도시에서의 직업선택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구했느냐 하는 것은 도시로 이주해서 잘 적응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Todaro의 인구이동모형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면 이주자는 먼저 都市非公式部門에 종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조사되어 있기 때문에, 공식부문, 비공식부문으로 분류하지는 못하고,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대분류에 따라 모두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해서 이주자의 특성과 이주후 직업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직업분류는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즉 대분류상의 1, 2, 3에 해당되는 직업을 한 그룹으로 하고, 다음으로 판매·서어비스직, 즉 대분류상의 4, 5에 해당되는 직업을 한 그룹으로 하고, 다음으로 농업·생산·노무직, 즉 대분류상의 6, 7, 8, 9에 해당되는 직업을 한 그룹으로 하는 등 모두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분석방법은 다항 로지트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이용하였다. 다항 로지트모형에서는 가구주 i 가 j 직업을 선택할 확률은 (1)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P_{ij} = \frac{\exp(X_i' B_j)}{\sum_j \exp(X_i' B_j)} \quad j = 0, 1, 2, \dots, J$$

B : 추정해야 할 파라미터

X : 개인의 특성

(1)식에 의해 파라미터 B를 추정하기 위해 (2)식과 같은 함수식을 설정하였다 .

$$(2) P_{ij} = f(\text{SEX}, \text{AGE}, \text{SY}, \text{MAR}, \text{YR})$$

여기서

SEX:성별(0:남성, 1:여성)

AGE:연령 (세)

SY: 교육연수 (년)

MAR:결혼상태 (0:미혼, 1:기혼 및 기타)

YR:도시에서의 거주기간(년)

이 함수식의 추정결과는 〈표 7〉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그룹은 비경제활동인구이다. 즉 비경제활동인구의 함수식의 계수는 모두 0이다. 따라서 〈표 7〉의 각 식의 계수는 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어떤 특성을 강하게 가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먼저 성별(SEX)을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陽의 부호를 나타내고, 판매·서비스직은 陰의 부호를 나타내나, 모두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다. 농업·생산·노무직의 경우 陰의 부호를 나타내고,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이것은 남자는 여자에 비해 농업·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연령(AGE)의 계수를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업·생산·노무직은 陰의 부호를 나타내고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즉 연령이 높아질수록 판매·서비스직과 농업·생산·노무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작아지며 그 정도는 농업·생산·노무직의 경우가 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연수(SY)의 계수를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은 陽의 부호를 나타내고, 농업·생산·노무직은 陰의 부호를 나타내며,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기술·행정·관리직에 종사할 가능성 커지며, 반대로 농업·생산·노무직에는 종사할 가능성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 칼라 직종을 선택하고,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 칼라 직종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를 보면 세 직종 모두 계수들이 陽의 부호를 나타내고, 1% 수준

에서 유의성이 있다. 이것은 세 직종 모두 비경제활동인구에 비해 기혼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기혼자일수록 특히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에서의 거주기간(YR)을 보면 세 직종 계수들이 모두 陽의 부호를 나타내나, 유의성이 없다. 이것은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직업선택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자만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분석을 하기에 부족하지만, 이 결과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후 직종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 직업선택에 관한 다항 로지트 모형

	전문·기술·행정·관리직	판매·서비스직	농업·생산·노무직
constant	-5.059 (0.811)**	-0.898 (0.685)	2.333 (0.590)**
SEX	0.188 (0.303)	-0.219 (0.285)	-1.141 (0.252)**
AGE	-0.008 (0.017)	-0.030 (0.014)*	-0.059 (0.013)**
SY	0.388 (0.051)**	0.018 (0.039)	-0.102 (0.035)**
MAR	1.184 (0.382)**	2.339 (0.371)**	1.699 (0.311)**
YR	0.075 (0.081)	0.082 (0.077)	0.102 (0.068)
표본수(N)	726		
Log-Likelihood	-855.45		

주: 1) ()안은 표준오차

2)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3) 비경제활동인구가 기준으로 제외되었음.

IV. 주거형태

이 장에서는 이주자의 제반 특성과 住居形態와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한 가구가 도시로 이주했을 때 도시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주자가 도시에서 선택한 직업종류와 함께 주거형태를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하면 현 한국의 상황에서 한 개인

이나 가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도시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가 일반적으로 직업을 구하는 문제와 더불어 주택문제 해결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에서의 주택보급률은 50% 내외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 그리고 도시의 빈민가와 무허가주택지역 거주자의 대부분은 농촌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¹⁾ 이런 점에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의 경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세집 또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이동특별조사’의 ‘가구’조사에는 주거형태가 조사되어 있다. 앞 장에서 고찰한 것과 마찬가지로 표본가구 8,831호 중,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는 6,946호이고 이 중에서 5년 이내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가구는 726호이다. 이들의 주거형태는 〈표 8〉과 같다. 먼저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가구를 보면, 전체 726호 중 자기집을 소유한 것이 101호로 13.9%, 전세가 333호로 45.9%, 월세가 259호로 35.7%, 그리고 기타가 33호로 4.5%이다. 반면에 도시거주자 6,946호의 주거형태를 보면, 이 중 자기집을 소유한 경우가 2,891호로 41.6%, 전세가 2,302호로 33.1%, 월세가 1,492호로 21.5%, 그리고 기타의 경우가 267호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한 경우, 대부분이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자기집을 소유한 경우는 13.9%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자의 경우 도시거주가구에 비해 주택사정이 아주 나빠, 이주초기에는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주거형태

주택소유형태	농촌-도시 이주가구	도시가구
자 가	101호(13.9%)	2,891호(41.6%)
전 세	333호(45.9%)	2,302호(33.1%)
월 세	259호(35.7%)	1,492호(21.5%)
기 타	33호 (4.5%)	267호 (3.8%)
계	726호(100.0%)	6,946호(100.0%)

자료 : 〈표 1〉과 동일

1) 예를 들어 한상진 등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빈곤가구 중 61.3%가 농촌 출신이다.(한상진 외, 도시비공식부문연구, 현대사회연구소, 1985). 서울시가 행한 다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 시민의 69.3%가 郡部 출신이다. (이종훈, 1985, p.48에서 재인용)

이 장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726명의 자료를 가지고 주거형태에 관한 다항 로지트 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추정하여 이주자의 제반특성과 주거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크게 자가, 전세 또는 월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타를 월세에 포함시켜 분석하기로 한다. 이렇게 함수를 추정하면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서 전세, 또는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강한지를 분석할 수 있다. 이용한 함수형태는 (3)식과 같다. (2)식과의 차이점은 독립변수로 가족규모(FS)를 추가한 것이다. 즉 가구주 i 가 k 주거형태를 선택할 확률 P_{ik} 는 성별, 연령, 교육연수, 가족규모, 결혼상태, 그리고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의 함수로 하였다. (3)식에 나타난 변수들의 내용은 (2)식과 같다.

$$(3) P_{ik} = f(\text{SEX}, \text{AGE}, \text{SY}, \text{FS}, \text{MAR}, \text{YR})$$

이 함수식의 추정결과는 <표 9>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기준이 되는 그룹은 월세이다. 먼저 성별(SEX)을 보면 전세의 경우 陽의 부호를 나타내나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없다. 자기집의 경우 陽의 부호를 나타내고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여자가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먼저 변수들과의 관계, 예를 들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학력이 높은데, 학력이 높을수록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학력이 남자가 여자보다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은 것을 일부 설명하는데 연유한다. 따라서 순수히 성별만 고려할 경우 여자가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을 수 있다. Lim(1980; 21-22)도 여자가 남자보다 자기집을 소유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이 결과가 나온 것은 표본수집상의 문제이거나 여자 가구주의 재산때문이라고 하고 있다.²⁾ 다음으로 연령(AGE), 교육연수(SY), 가족규모(FS), 그리고 도시에서의 거주기간(YR)의 계수를 보면 모두 陽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으며,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고, 그리고 계수의 값이 자기집의 경우가 전세보

2) 김 재홍은 1982년의 주택소유함수를 추정한 결과 성별에 관한 계수는 모두 유의성이 없어 성별과 자기집 소유와는 뚜렷한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 (Kim, J. H., 1990, pp. 25-34)

다 크다. 이 결과에서 월세에 비해서 전세를 구할 가능성과 전세에 비해서 자기집을 소유할 가능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가족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계층은 주로 젊은 층인데, 젊은 층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 뿐 아니라 저축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증가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증가하는 것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인적자본이 축적되어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족규모가 증가할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가족규모가 증가할수록 가족 전체의 소득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자기집의 소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도시에서의 거주기간(0-5년)이 길수록 자기집 소유경향이 높아지는 것은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시환경에 보다 잘 적응하게 되고,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 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축도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표 9〉 주거형태 결정에 관한 다항 로지트 모형

	전 세	자기집
constant	-3.053 (0.511)**	-11.484 (1.034)**
SEX	0.117 (0.209)	1.076 (0.380)**
AGE	0.028 (0.011)*	0.111 (0.016)**
SY	0.143 (0.028)**	0.334 (0.044)**
FS	0.185 (0.072)*	0.489 (0.096)**
MAR	-0.036 (0.257)	0.568 (0.583)
YR	0.191 (0.055)**	0.302 (0.093)**
표본수(N)	726	
Log-Likelihood	-614.36	

주: 1) ()안은 표준오차

2) **: 1% 수준에서 유의

* : 5% 수준에서 유의

3) 월세가 기준으로 제외되었음.

결혼상태(MAR)계수는 모두 유의성이 없어 주거형태 결정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전세나 자기 집을 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변수들간의 상호 관련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연령이 높고 가족규모도 큰데, 이들 연령과 가족규모가 결혼상태가 설명해야 할 부분을 일부 설명하기 때문이다.

V. 이주후 생활상태비교

앞에서 설명한대로 ‘인구이동특별조사’에서는 ‘가구’조사와 ‘개인’조사가 있다. 이 장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전과 이주후의 생활상태를 비교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개인’조사에 있다. ‘개인’조사는 가구에 대한 사항을 먼저 조사한 후, 가구원 중 1명을 선정하여 그 개인을 대상으로 이주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된 가구수는 8,897호인데 이 중 개인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8,709명이고, 이 중 실제로 이용가능한 자료는 8,602명이다. 이 조사에는 개인의 이동사가 자세히 조사되어 있다. 여기서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동이라는 것은 직전 거주지가 농촌이고 현거주지가 도시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할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개인은 916명이 된다.

이 ‘개인’조사표에는 移住前과 移住後의 생활상태를 비교하는 문항이 있다. 문항수는 모두 12개, 즉 직업종류, 수입, 교육 또는 기술습득, 자녀교육,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친척·친구와의 관계, 주택상태, 건강보호, 식생활, 시장보기, 교통수단, 그리고 주위환경 등이다.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이주전과 이주후가 어떻게 다른가를 ‘더 좋아졌다’, ‘마찬가지다’, ‘더 나빠졌다’, ‘모르겠다’, 그리고 ‘해당없음’ 등 모두 5가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를 파악하고 있다.

〈표 10〉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916명을 대상으로 이들 12개 문항에 대하여 농촌에서의 상태와 도시로 이주한 후의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각 항목의 숫자는 그 항목에 대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마지막 列의 평균점은 ‘더 좋아졌다’를 100, ‘마찬가지다’를 0, ‘더 나빠졌다’를 -100, 그리고 ‘모르겠다’와 ‘해당없음’을 0으로 놓고, 각 문항의 평균치를 구한 것이다.

〈표 10〉에서 전체 916명의 평균점을 보면 ‘건강보호’는 값이 陰으로 나타나 농촌에서보다 도시로 이주한 경우 상태가 보다 못하다고 평가되었으나, 나머지 항목은 모두 陽의 값을 나타내 농촌에서보다 도시에서의 상태가 보다 낫다고 평가되었다. 그 중에서 ‘교통수단’, ‘시장보기’, ‘식생활’ 그리고 ‘자녀교육’ 항목은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내, 이들 항목들의 생활상태가 농촌에서보다 도시로 이주한 후 상대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개선은 되었으나 그 개선된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직업종류’,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주택상태’ 등이다. 이것을 볼 때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경우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이 다른 문제보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도 다른 항목이 좋아지는 것처럼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이들 12개 항목의 상호관련성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상호관련성을 나타내는 지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Goodman-Kruskal의 감마(gamma)를 이용하기로 한다. 감마는 (4)식과 같이 나타내어진다(李永俊, 1993: 162-164).

$$(4) \gamma = \frac{P-Q}{P+Q}$$

(4)식에서 P는 부합적(concordant)인 관찰치, Q는 비부합적(discordant)인 관찰치의 수를 나타낸다.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 10〉에서 평균점을 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더 좋아졌다’를 100, ‘마찬가지다’를 0, ‘더 나빠졌다’를 -100, 그리고 ‘모르겠다’와 ‘해당없음’을 0으로 놓았다. 표본이 클 경우 (5)식의 Z값은 대략적으로 정규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면 유의성을 검정할 수 있다(李永俊, 1993: 162-164). 여기서 n은 표본수이다.

$$(5) Z = \gamma \sqrt{\frac{P+Q}{n(1-\gamma^2)}}$$

이렇게 구한 감마값은 〈표 11〉에 나타나 있다. 이 표를 보면 직업종류, 수입, 교육 또는 기술습득 등의 만족도는 상호관련성이 크다. 그리고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친척·친구와의 관계도 좋

아졌다고 평가했다. 식생활, 시장보기, 교통수단, 주위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도 상호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교육 또는 기술습득, 자녀교육 등은 타항목과 상호관련성이 낮고, 식생활, 주위환경 등은 타항목과 상호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이주후 각 부문별 상태비교

단위 : %

	더 좋아 졌다	마찬가 지다	더 나빠 졌다	모르겠 다	해당 없음	전체		평균점
						비율	표본수	
직업종류	15.4	17.8	6.3	1.7	58.7	100.0	916	9
수입	21.7	14.1	6.9	1.7	55.6	100.0	916	15
교육 또는 기술습득	17.4	10.8	1.2	3.4	67.2	100.0	916	16
자녀교육	31.6	5.3	1.4	3.8	57.9	100.0	916	30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28.8	46.9	20.0	1.9	2.4	100.0	916	9
친척, 친구와의 관계	35.2	41.5	20.6	2.2	0.5	100.0	916	15
주택상태	42.7	21.6	34.1	1.3	0.3	100.0	916	9
건강보호	24.6	39.8	34.9	0.5	0.1	100.0	916	-11
식생활	46.6	40.6	12.3	0.3	0.1	100.0	916	34
시장보기	53.4	12.9	10.5	1.5	21.7	100.0	916	43
교통수단	81.9	10.2	7.0	0.8	0.2	100.0	916	75
주위환경	49.5	19.2	28.9	2.3	0.1	100.0	916	21

자료 : 경제기획원,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3 인구이동특별조사(개인)”의 원자료.

주 : 평균점은 ‘더 좋아졌다’를 100, ‘마찬가지다’를 0, ‘더 나빠졌다’를 -100, ‘모르겠다’와 ‘해당없음’을 0으로 놓고, 이들의 평균치를 구한 것임.

〈표 11〉 각 변수들의 상호관련성:감마(gamma)

	2	3	4	5	6	7	8	9	10	11	12
1) 직업종류	.78**	.55**	.21	.07	.10	.18	.14	.17	-.05	.08	.25**
2) 수입		.45**	.21*	.13	.13	.14	.10	.21*	-.11	.10	.12
3) 교육 또는 기술습득			.19	.08	.09	-.17	.09	.09	-.16	.13	.03
4) 자녀교육				.13	.05	.16	.06	.13	.17	.25*	.04
5) 비동거 가족과의 관계					.52**	.16*	.09	.20**	.02	.05	.18*
6) 친척, 친구와의 관계						.27**	.17*	.27**	.05	.08	.27**
7) 주택상태							.27**	.54**	.22**	.14	.36**
8) 건강보호								.37**	.04	.02	.21**
9) 식생활									.42**	.47**	.36**
10) 시장보기										.75**	.19*
11) 교통수단											.38**
12) 주위환경											

주 : **: 1% 수준에서 유의

*: 5% 수준에서 유의

VI. 결 론

이제까지 ‘인구이동특별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개별가구의 농촌·도시간 이주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분석하였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자의 이주이유를 보면, 경제적 요인이 제일 많고, 다음으로 교육적 요인, 그 다음으로 가족적 요인이 많았다. 이것을 다시 성별, 결혼상태별, 연령별, 교육정도별, 그리고 직업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χ^2 분석을 하면 이들 가구주의 특성과 이주이유와는 5%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다항 로지트 모형을 이용하여 이주자의 제반 특성과 도시에서의 직업선택, 그리고 이주자의 제반 특성과 주거형태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주자의 특성은 직업선택과 주거형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농촌에서와 도시로 이주한 후의 생활상태를 12개 항목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 건강보호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도시에서 생활상태가 보다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교통수단, 주위환경, 식생활, 그리고 자녀교육 등에서 상태가 나아진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은 이제까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것은 본 논문에서 나타나듯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면 생활의 질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이다. 농촌의 인구가 과소한데도 불구하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과다한 인구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농촌과 도시 양쪽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간에 적정한 인구배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유인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즉 농촌거주가구의 소득원이 충분해서 도시가구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교통, 문화시설 등 농촌의 사회간접자본시설도 충분히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姜信寓, “農村人口變動에 관한 實證的 研究(忠清北道地方을 中心으로)”, 『충북대학교학 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29집, 1985.
- 姜信寓 外, “韓國農村에 있어 人口減少現象에 대한 原因分析”, 『충북대학교 논문집(인문, 사회과학편)』, 제 26집, 1983.
- 민상기·정명채, 『이농·탈농의 도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28, 1990, 12.
- 윤근섭, 『農村人口의 移出과 適應에 관한 研究(全北 農村의 事例를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7, 6.
- 尹汝德 外, 『農村人口移動에 관한 社會學的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62, 1983, 12.
- 尹汝德·金鍾採, 『離農民의 都市適應과 社會統合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79, 1984, 12.
- 尹鍾周, “個人的 移動史에 관한 研究,” 崔仁鉉 外 編,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人口移動特別調查 深層分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1986.
- 尹辰浩, “都市非公式部門의 勞動力移動에 관한 一研究,” 『仁荷大學校 社會科學研究所 論文集』, 第5輯, 1986, 2.
- , 『韓國의 不安定就業層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經濟學科 博士學位 論文, 1990.
- 李永俊, 『SPSS/PC+를 이용한 基礎資料分析』, 石井, 1993.
- 李宗勳, 『韓國의 農村—都市間 勞動移動經路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李炯惠·金鍾德, “農村의 家族移住에 관한 研究,” 『農村經濟』, 제5권 제1호, 1982, 3.
- 崔仁鉉 外 編, 『人口移動과 社會經濟發展(人口移動特別調查 深層分析)』, 韓國人口保健研究院, 經濟企劃院 調查統計局, 1986.
- 韓相震 外, 『都市非公式部門研究』, 현대사회연구소, 1985.
- Choi, Jin Ho, "Urban to Rural Migration in Korea," Goldscheider C.

- (ed.), *Rural Migration in Developing Nations*, Westview Press, 1984.
- Choi, Jung Whan, *Migr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ess-Developed Countries*,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90.
- Goldscheider, C. (ed.), *Rural Migration in Developing Nations*, Westview Press, 1984.
- Kim, Hunmee (Hunmin), *An Analysis of Individual and Family Migration Behavior: The Case of Korea*, Ph.D. Thesis, Harvard University, 1988.
- Kim, Jae-Hong, *Mobility,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in Korea*,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0. (unpublished paper)
- , *Divided Metropolis: Intra-Metropolitan Spatial Segmentation of the Labor Market*, Ph.D. Thesis, Carnegie Mellon University, 1993.
- Lee, B.S., *Urbanization in a Rapidly Growing Economy: An Analysis of the Income Distribution Aspects of Korean Urbanization Problems*, KDI, 1991.
- Lee, On-Jook,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0.
- Lim, Gill-Chin, "Determinants of Home-ownership in a Developing Economy: the Case of Korea", *Urban Studies*, Vol.17, 1980.
- Oberai, A.S. and H.K.M. Singh,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ternal Migration (A Study in the Indian Punjab)*,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Todaro, M.P.,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E.R.*, Vol.59, No.1, March 1969.